

뜨거운 광주 경매시장...낙찰가율 전국 1위

5월 경매동향보고...광주 낙찰가율 95% 전달 이어 연속 1위 토지 경매 낙찰가율 140.1% 전국 72.5% 웃돌며 독보적 1위 전남 상업시설 16.2% 전국 최하위...토지는 2달연속 상위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경매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서 광주지역 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광주 경매시장은 두 달 연속 전국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고, 토지 경매에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업무상업시설 부진을 제외하고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뜨겁게 달아오른 광주 경매시장=11일 법원경매 전문기자지속선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094건으로 466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77.1%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매 물건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팔려나가고 있다는 게 지지옥선 측의 설명이다.

광주의 경우 물건 소화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매 시장이 그야말로 뜨겁다. 광

주 전체 경매 낙찰가율은 95%로 전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123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64건이 낙찰돼 낙찰률 5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35.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낙찰가율도 전월 수준인 89.7%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업무상업시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53건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중 1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국 평균(25.1%) 수치인 26.4%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2.6%포인트나 급증한 94.5%로 전국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광주는 토지 경매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주의 토지 경매 낙찰률은 44.4%, 낙찰가율은 140.1%로 전

국 평균 낙찰률 34.7%, 낙찰가율 72.5%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평균응찰자수도 5.2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을 상회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광산구 우산동 소재 근린상가는 감정가의 104%인 23억5675만원에 낙찰되면서 광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서구 덕흥동 소재 답으로 8억 5588만원에 낙찰됐고, 광산구 수완동 소재 주택은 8억3999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남구 주월동에 있는 임야는 33명이나 몰려 감정가의 241%를 기록해 광주 최다 응찰자수 물건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서구 치평동 소재 아파트로 21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고, 19명이 입찰서를 제출한 남구 봉선동 소재 아파트가 3위에 올랐다.

◇전남 업무상업시설 전국 최하위=토지는 상위권-반면 전남지역은 업무상업시설의 부진을 제외하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꾸준히 40% 가량의 낙찰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46건 늘어난 197건이 경매에 부쳐졌고, 이중 7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 수준인 39.1%를 유지했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6.2%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두 배가 넘는 340건의 경매 물건 중 55건만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16.2%에 머물렀다. 올 들어 낙찰률이 10% 선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향후 누적 경매 물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우려로 꼽힌다.

전월 대비 17.7%포인트나 급락한 낙찰가율 58.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다만 토지는 두 달 연속 전국 상위권 성적을 나타냈다.

합평군 월야면 양정리 소재 축사가 감정가의 73%인 46억원에 낙찰되면서 전남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고, 2위는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소재 병원(17억8777만원), 3위는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소재 양아장(15억원)이었다.

최다 응찰자수 물건 1위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소재 아파트(27명)로, 2위 여수시 신기동 소재 아파트(25명), 3위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소재 대지(24명)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하철역 도보 5분”...뽕튀기 분양광고 철폐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 분양광고 사본 2년간 보관

이제 아파트 뽕튀기 분양 광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작년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되게 됐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감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뽕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분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해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소비자분들의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신세계백, 자체 캐릭터

'푸빌라' 굿즈 마케팅

광주신세계, 인증샷 이벤트

신세계백화점도 여름철을 맞아 '비치백' '비치타일' 등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Goods) 마케팅에 나선다.

(주)광주신세계는 1층 광장에 자체 캐릭터 '푸빌라'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련 판촉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는 푸빌라 비치백 4종(9900원)과 비치타일 2종(1만200원)을 사이트 'SSG닷컴'을 통해 예약 판매한다. 비치백은 6월12일, 비치타일은 7월 10일부터 1층 분관 사은행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신세계는 올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제작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신세계 제휴카드로 매장에서 15만원 이상 결제하면 이 상품을 1인 1개 한정으로 선착순 증정한다.

광주신세계는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열어 공식 인스타그램에 '푸빌라' 조형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200명을 추첨해 '푸빌라 튜브 캡슐'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1일 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 설치된 '푸빌라' 조형물 앞에서 한 고객이 인증사진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 사라진다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을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이마트 순천점, 전관 리뉴얼 후 오늘 그랜드 오픈

이마트 순천점이 개관 16년을 맞아 6개월 간 새단장한 모습을 12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신선매장의 냉장·냉동기기를 교체해 식품 신선도를 강화하고 주류·전자매장을 보강했다.

과일·수산물 매장은 고객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스토리 텔링 체험형 매장'으로 구성했으며 간편요리·식사의 웰드멜리 28종을 추가해 먹거리를 늘렸다.

순천점은 여름철 주류 수요를 잡기 위해 208㎡(63평) 규모 '와인 앤 리큐르' 매

장을 새로 열었다.

또 이마트의 자체 가전매장인 '일렉트 로마트' 49번째 매장이 순천점에 문을 연다. 규모는 1300㎡(390여평)에 달한다.

이곳에는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5㎡(32여평) '에플스토어'가 입점했으며 '체험형 게이밍룸'도 운영된다.

이마트 순천점은 새단장을 기념해 12~16일 닷새 동안 할인 행사를 벌인다.

할인 상품은 수박(8~9kg 1만3900원)과 남도계란(30구 2980원)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